

# 2012년 대입부터 '고1 내신' 제외

## 학원교습시간 초등 밤 9시·중고 10시이후 금지 당·정·청 합의... 내신 상대평가서 절대평가로

당·정·청이 그동안 교육개혁과 관련해 논란을 빚어온 대학입시개선안 가운데 '고1 내신성적'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데 따라 이르던 2012학년도부터 고교 1학년 내신성적 없이 대학진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야간 과외교습 금지 시간도 초등 학생은 밤 9시 이후, 중·고생은 밤 10시 이후로 시간대를 세분화해 시행하는 것으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내신 상대평가제도 절대평가제도로 바뀐다.

한나라당은 26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교육비 등 사교육 광풍(狂風)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중산층 서민경제 위협하는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주제로 한 교육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차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발표됐으며, 앞으로 한나라당은 이를 바탕으로 한 사교육 폐해 근절 방안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와 당 지도부의 반대와 직면해 주춤했던 광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정두언 의원의 '사교육 대책안'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교육 병폐 근절 의지 표명으로 힘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광승준-정두언 안'은 ▲내신 전면반영 금지 등의 특목고 입학전형 개선 ▲내신 상대

평가제 폐지, 절대평가제 도입 등의 대학 입학전형 개선 ▲학원 야간 교습시간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래기획위 자문위원인 안선희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은 발제를 통해 "엘리트 선 발하는 특목고 입시제도가 입시경쟁의 주범"이라고 지적하면서 "내신 전면반영 금지"로 사교육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어고의 경우 외국어와 국어(또는 사회) 과목 내신만, 과학고의 경우 수학, 과학 과목 내신만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안 부소장은 대입 제도와 관련, "현행 내신 상대평가제는 지나친 내신 경쟁과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한다"며 "따라서 5등급 절대평가로 개선하되, '성적 부풀리기'라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연2회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원 교습시간을 저녁 9시 또는 10시로 제한하고, 학원비 공개, 부당 학원비 징수 모니터링 강화, 학원 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등 고액 불법 학원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제안했다. 동시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횟수 확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영어교육의 단계적 무상화 추진, 교원평가제를 통한 공교육 역량 신장 등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긴급대책에 포함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는 26일 광주YMCA에서 '광주도청 별관 문제 해결을 위한 3차 시민사회 원탁회의'를 갖고 '별관 일부 보존안'을 공식 제안했다.

## '도청 별관 일부 보존안' 공식 제안

### 광주 시민사회 원탁회의 합의문 발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별관 일부 보존안'을 공식 제안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 11명은 26일 오후 2시 광주YMCA에서 '도청 별관 문제 해결을 위한 3차 시민사회 원탁회의'를 가진 뒤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 사항은 '오월의 문'(별관 1, 2층을 풀어 터널식 입구를 만드는 안)을 다수안, 별관 3분의 1 이상 존치하는 것을 소수안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광주시장 등으로 구성된 10인 대책위원회'는 이번 원탁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해 관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키로 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24일 잇따라 회의를 열어 '별관 완전 철거', '오월의 문', '별관 3분의 1 이상 보존' 등 세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아울러 이 합의안을 조만간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10인 대책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원탁회의에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 전남문화연대,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그러나 10인 대책위와는 별도로 사업주체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이 부분 철거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기료 오늘부터 평균 3.9% 오른다

27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3.9% 오른다. 또 가스요금은 평균 7.9% 인상된다.

지식경제부는 7개 용도별 전기료 가운데 주택과 농사용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전력 요금을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가스요금 인상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교육용과 가로등용은 6.9%씩 오르고, 유일하게 요금이 원가를 넘지 않는 일반용 전기료도 2.3% 인상된다. 또 산업용은 계약전력이 300kW 미만이면 3.9%, 300kW 이상이면 6.9% 오른다.

연협뉴스

## ■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사망

# 성형중독·아동 성추행... 히트곡 만큼 스캔들도 많아

소년 시절부터 팝의 신동이었었고,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팝스타였으며, 지구상 최고의 음악인으로 기록될 마이클 잭슨이 50세의 아까운 나이에 스러졌다.

고인은 값지지만 음악과 춤, 이들이 더해진 화려한 뮤직비디오를 선보이며 대중문화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린 '팝의 황제'란 칭호는 영원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 누구보다도 화려한 나날을 보낸 이 최고의 스타는 그러나 2005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성형수술 논란에 휩싸이며 대중으로부터 멀어진 은둔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두 번의 공식 결혼과 3명의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그는 어린이에 대한 성적 학대 사건을 비롯한 여러 소송에 시달리는 등 평탄치 못한 삶을 살았다.

1958년 8월29일 인디애나 주 게리의 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난 마이클 잭슨은 어렸을

적부터 음악에 대한 재능을 맘껏 뽐냈다. 그는 4명의 형들과 함께 구성된 '잭슨파이브'에 6세 때부터 참여했다.

초기 성공에도 불구하고 잭슨의 어린 시절은 순탄치 않았다.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경험했던 잭슨은 이 시기를 불행하고 고독한 시절로 기억했다.

잭슨파이브와 결별한 잭슨은 1979년 제작자인 퀸시 존스 아래에서 첫 솔로 앨범인 '오프 더 월'을 내 1천만장 이상을 판매하는 성공을 거뒀다. 퀸시 존스와 다시 뭉쳐 1982년 제작한 '스릴러'는 그의 작곡가 및 공동제작자로서의 재능까지 입증하면서 팝 역사상 전무후무한 4천100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최고의 히트를 거뒀다.

하지만 잭슨은 1993년 어린이에 대한 성적 학대 사건으로 인해 구설수에 오르며 1년후 무려 2천330만달러에 이르는 합의금을 치러



2006년 런던에서 열린 월드 뮤직어워드에서 마이클 잭슨이 어린이들과 함께 '위 아더 월드'를 열창하고 있다.

야했다. 이후 그는 이 합의를 후회했다. 잭슨은 성형수술로 인한 외모의 변화로도 구설수에 올랐다. 수년에 걸쳐 그의 피부는

얇아져갔으며 부작용에 시달렸다. 배너티 페어 지(誌)는 그의 코끝이 보철물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연협뉴스

### 빛의 만평

- 김중두

어떻게 알았지?!

## '스릴러' 앨범 1억400만장... '보는 음악' 새 지평 열어

### ■ 마이클 잭슨 음악 세계

13개 넘버원 싱글, 7억5천만장 앨범 판매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 13개 그래미상 수상... 마이클 잭슨은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팝의 황제'로 군림했다. 잭슨은 6살 때인 형제들과 함께 '모타운'(Motown) 레이블에서 '잭슨 파이브'(The Jackson 5)와 '잭슨스'(The Jacksons)로 함께 데뷔했다. 6년 동안 형제들과 활동하면서 잭슨은 '아일 비 데이'(I'll Be There), '아이 원트 유 백'(I Want You Back), '더 러브 유 세이브'(The Love You Save) 등의 히트곡을 남겼다.

1975년 모타운을 떠난 잭슨은 전설적인 음악 프로듀서인 '퀸시 존스'(Quincy Jones)를 만나 3년 뒤 첫 성인 솔로 앨범인 '오프 더 월'(Off The

Wall)를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1천만장이 팔린 이 앨범엔 '록 위드 유'(Rock With You)와 '돈 스톱 틸 유 겟 이너프'(Don't Stop 'Til You Get Enough) 등이 수록돼 있다.

1982년 잭슨은 팝 역사상 전설로 기록된 '스릴러'(Thriller) 앨범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1억400만장 이상이 팔린 앨범이자 이듬해 올해의 앨범상을 비롯해 그래미 8개 부분의 상을 휩쓴, 말 그대로 '초대박'인 앨범이다. 이 앨범엔 '빌리 진'(Bille Jean), '빗 잇'(Beat It), '스릴러', '걸 이즈 마인'(Girl Is Mine) 등이 수록돼 있다. 이 앨범은 발매 직후 37주 동안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고 수록곡 9곡 중 무려 7곡이 차트 10위권 내에 올랐으며 1985년 기네스 북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기록됐다.

연협뉴스

## 시설

### 문광부, 도청 별관 문제 유연성 보여야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5일 "옛 전남도청 별관의 일부 존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절충안이 나온다면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1년여 이상 끌어온 도청별관 논란과 관련해 당초 계획했던 철거 이외의 어떤 대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부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5월 단체로부터 별관문제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10인대책위나 시도 민대책위의 활동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자칫 도청별관 문제로 인해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과정이 장기화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김 차관은 이날 광주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10인대책위 등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지만 별관 철거는 기존 설계 콘셉트를 훼손하는 내용이 나온다면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물론 김 차관의 이 같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정부가 수년 동안 철거를 받아 확정지은 국가적 사업들, 그것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거 이외의 어떤 절충안도 안 된다고 뜻을 바꾼 점은 생각할 볼 문제다. 정부가 철거 방침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면 대책위의 활동은 무의미하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꼬이게 할 수 있다.

문광부는 별관 문제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대책위가 시민의 뜻이 담긴 절충안을 내놓는다면 받아들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차관도 "광주 시민의 뜻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정부가 진정으로 별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경직된 사고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 사교육 경감대책 성공하려면

사교육 줄이기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할 지 꼭 한달여만이다. 지난 4월 광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내놓았지만 당·정·청의 옛 방침이 이렇듯 "없던 일"이 됐다. 사교육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 혼선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26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발표한 중산층·서민의 학습복지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따르면 고교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고 내신반영 비율도 줄어든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 대입 전형부터 고1 내신이 제외된다. 또 야간 과외교습 금지 시간도 초등학생은 밤 9시 이후, 중·고생은 밤 10시 이후로 시간대를 세분화해 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학생 상호간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내신 상대평가제도 절대평가제도로 바뀐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는 사교육을 잡기 어렵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자물쇠와 경쟁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근본대책으로 미흡하다. 사교육비 절감은 공교육 정상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정책기조를 '공교육 모드'로 바꿔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사교육 수요를 축약하는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초·중·고 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계로 강화하고, 학생들과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보완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전남도 교육청이 내놓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전남형 전환학교'가 좋은 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공교육 정상화에 나서는 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 DJ "중도강화론은 궁여지책"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강화론에 대해 "이 대통령이 최근 보수에서 중도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민심이 심상치 않아 궁여지책으로 그런 것"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은 전남 6.15공동선언 9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장 오찬에서 "백성의 힘은 무한하며 진 일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는 "지난 10년 정부를 생각하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상황이) 너무 급해졌고 기가 막히다"며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옳은 소리를 하고 나쁜 정치를 거부하면 반드시 이기고 나쁜 정치는 망하지만, 탄압을 해도 '무섭다', '귀찮다'고 행동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지고 망한다"고 "행동하는 양심"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그러나 인도 간디와 미국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비폭력투쟁을 예로 들어 "투쟁은 해야 하지만 폭력 투쟁을 하는 것보다는 투쟁을 안하는 게 낫다"며 "폭력 투쟁은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해도 결과가 나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폭력을 쓰면 다수가 모이지도 못하고 그 자체로서 도덕성을 잃게 된다. 때리면 맞고 잡아가면 끌려가야 어떻게 하겠느냐"며 "폭력은 더 큰 폭력을 유발하며 그 책임은 폭력투쟁을 한 사람 쪽에 돌아가게 되는 만큼 순리도 아니며 계산상으로 도 맞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협뉴스

## 광주 '지엔알' 국내업체론 첫 중에 태양광발전소

광주에 본사를 두고 IT(정보기술) 부품용 기반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벤처기업인 ㈜지엔알이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중국에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시작한다.

㈜지엔알은 지난 3월 계약을 체결한 중국 이징(Eging)사의 1MW급 태양광 발전 시스템 건설을 위해 지엔알이 새로 개발한 1축 회전식 트랙터 100세트와 조립에 필요한 부속자재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자체들은 약 600kW 규모의 발전소를 시공할 수 있는 양이며 추가로 400kW 시공

에 필요한 자재는 오는 7월 중순께 선적될 예정이다. 또 발전소 시공 권리와 기술을 담당할 엔지니어 7명을 중국 현지로 파견해 8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발전소 공사가 완료되면 지엔알은 국내 업체로는 최초로 상업용 태양광발전소를 중국 현지에 시공한 업체가 된다.

관련 지엔알은 지난 23일 광주 첨단산업단지에 태양광 모듈을 연간 30MW 생산하고 태양광발전시스템 50MW급을 시공할 수 있는 모듈셀 공장을 착공했다. /정필수기자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濤喆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0-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1부 2200-612	체육팀 2200-691	사회2부 2200-626	사건부 2200-691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